

#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익산시,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생활밀착형 도시 개발

익산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생활밀착형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건설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본격화한다. 오는 2023년 연말까지 신관을 건립해 모든 부서를 이전한 후, 2024년까지 전면의 본관과 의회등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여성·아동·노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어울림 공간과 공공시설 간 그린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신청사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도비 17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 1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LH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어 동산동 월담지구, 모현동 옥창지구, 평화동 평화지구에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 도심 내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도심 공원에 공동주택 5곳, 약 7천500세대를 건립하는 금세권 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익산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는 휴식·배움공간, 문화 향유공간 조성 등 권역별 특색있는 공원 조성으로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분양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대폭 상향해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도시 구축에도 힘쓴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40%),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600호), 농촌·도시빈집정비사업(150동) 등 분야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생활공감 시책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익산시는 KTX익산역 철

도차량까지 이전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구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역세권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물류·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사통팔달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도 27호선 서수~평장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교통물류 기반조성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새만금 배후도시로 견인할 오산 신지~영만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올 상반기 실시할 계획에 착수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임시개통된 연무 IC-일반산단 진입도로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사통팔달 교통도시 도약을 힘써 예정

이다. 이명천 건설국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도시·건설분야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시민 행복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익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최저가 분양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 “침체된 구도심 활기 되찾고”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 최저가 분양 촉구

익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최저가 분양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는 LH 측에 올해 분양 예정인 평화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대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코오롱 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오는 3월 분양 공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분양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아파트는 총 1,382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094세대이며, 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39㎡ 24세대, 59㎡ 261세대로 288세대이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묘토

정화, 휴마이 설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은 오는 2월 말까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인구 유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주택 공급과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신축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LH의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장기지연되었으나 익산시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익산=이특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설 명절 장보기 행사 실시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역전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시장과 송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장상품권으로 제수 용품 등 시장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격려했다.

또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만나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펼쳤다.

임도훈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로 시민 모두가 어렵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르면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 익산시 안전 분야 5관왕 기관 표창

익산시가 정부와 전라북도 안전 분야 평가에서 5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자연 재난 등에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펼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1년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비상대비 훈련은 총무계획에 의거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상대비훈련 상황에 민첩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129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기동반을 구성해 노후·고위험 시설에 대해 꼼꼼하게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익산=이특훈 기자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위기가구 핀셋 지원

실직·휴·폐업 등 긴급 위기 처한 시민... 정부 지원보다 확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익산시가 정부 지원 기준보다 확대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위기가구 핀셋 지원에 나선다.

17일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익산형 긴급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부 긴급지원 위기 사유와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직, 휴·폐업, 주소주거의 사망 등으로 압축시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원을 실시한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산 시민이 지정기탁한 성금을 활용해 시와 민간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손잡고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익산시는 기존 정부의 긴급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4인 가구로 보면 월 소득이 기존 384만원에서 512만원까지 상향조정 되는 셈이다.

긴급 지원되는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정부의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은 위기가구를 포함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통리장·이웃 주민 등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주소주거의 실직, 사망, 구급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위기 상황에 처한 654세대에 4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익산시는 특색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특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만족도 96.2%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96%가 앱이용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된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1,977명 중 96.2%인 1,902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출시 첫 해인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년 대비 12.1%p 상승해 응답자의 96.2%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배달앱 이용 개수 △배달의 명수 이용 횟수 △배달의 명수 사용 이유 △만족도 등 총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복수선택)에서 군산시장상품권의 사용이 응답자의 81%로 나왔으며,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의견도 46%나 나와 군산시민의 높은 시민 의식도 엿볼 수 있었다.

배달의 명수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복수선택)에서는 할인이벤트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68%였으며 ‘준비 중인 가맹점이 많다’는 응답이 45%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철저한 가맹점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남현봉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